

May 16 하나님과 홀로 있기

• 마태복음 6:6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할까 봐, 잘못 들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실수는 실수일 뿐 죄가 아닙니다. 나의 판단과 명철함이 아닌 모든 과정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녹여 내십니다. 무지로 인한 실수까지도 훈련과 성장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체질을 아시고,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미숙함을 정죄하고 꾸짖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행착오도 ‘하나님 안에서’ 겪습니다.

목상은 ‘하나님과 홀로 있기’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오대원 목사(David E. Ross)는 에녹을 훌륭한 목상자로 꼽았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걸으며, 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에녹은 소란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초청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은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간절히 청해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홀로 있기’입니다. 목상은 고요해지면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나는 홀로 하나님 앞에
앉습니까?

- ① 소란한 삶 한복판에서 마음의 기도실을 열고 들어갑니까?
- ② 친밀함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